

追慕辭

오늘, 우리는 民族의 指導者이셨던 古下 宋鎮禹 先生님의 誕辰 121週年을 맞이하여 先生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韓末, 抗日 義兵大將이셨던 기삼연 義兵長으로부터 漢學을 깨치신 先生님께서 日本留學을 마치고 歸國하여 이듬해 3.1獨立運動의 謀議處가 된 中央中學 校長에 취임하여 學生들에게 民族意識을 불어넣는 데 남다른 熱情을 쏟으셨습니다.

3.1獨立運動의 사전 계획 과정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하신 先生님께서 이로 인해 1년 반의 獄苦를 치르시고 出監하여 같은 해 《東亞日報》社長에 취임하신 후, 30여년간 民族의 自主獨立을 위해 言論人으로서의 使命을 다 하셨습니다.

先生님께서 또한 8.15 광복 후, 建國準備委員會와 맞서 民族主義 세력을 규합하여 韓國民主黨을 結成하시고, 首席總務가 되어 美軍政에 協力하시다가 이승만 博士 및 임시정부 一部 要人들과 함께 大韓民國 政府樹立에 기여하셨습니다.

先生님께서 光復 直後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폭넓은 人間關係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 政府樹立 推進勢力의 結集에도 남다른 리더십을 發揮하셨습니다.

先生님께서 가지셨던 寬容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社會 指導層들이 眞情으로 갖추어야 할 德目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社會 指導層들은 疏通을 위한 努力은커녕 國民과 民族을 위한 비전도 提示하지 못하고,

政治界는 政治界대로, 公職者는 公職者대로 黨利黨略, 私利私慾, 도덕성 해이가 만연되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는 古下 先生님을 비롯한 지난날 風餐露宿의 온갖 苦難 속에서도 祖國光復의 念願을 잊지 않았던 이 땅의 수십만 先烈들의 崇高한 遺志를 미욱한 저희들이 眞情으로 이어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日帝의 압박에 맞서 겨레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愛國魂을 불태우신 古下 宋鎮禹 先生님이시어!

온갖 苦難과 試鍊 속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듯이, 世界에서 唯一하게도 親日 民族反逆者를 처단하지 못한 나라,

半世紀가 넘도록 南과 北으로 갈리어 民族 共滅의 危機에 놓여 있는 가엾은 나라의 百姓인 저희들이 分斷을 克服하고, 人類의 平和를 實現하는 더 큰 智慧와 勇氣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人體의 癌인 反民族 親日 勢力을 하루빨리 척결하고, 民族 正氣가 바로 선 眞情한 우리의 歷史를 後世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陰佑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冥福을 비읍니다. 편히 잠드소서.

2011. 5. 6

光復會長 職務代行 南萬祐